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비교

정 진 철

좌향초등학교

유 미 현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은 교육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 44명과 영재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학교 영재교사 56명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전공자의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개인효능감과 결과기대감에서 영재교육 미전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은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을 높여주고, 교수효능감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재교육 전공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교과지식, 영재아 이해, 개인효능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수전략과 개인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 < .05$). 여교사와 영재지도 경력이 짧은 영재교사는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라 남교사와 영재지도 경력이 오래된 교사에 비해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이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과지식과 교수전략이 개인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로써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은 영재교사의 교과지식과 교수전략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재교육 전공, 교육대학원, 영재교사, 전문성, 교수효능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공교육 체제하에서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또한 2002년부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제1·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영재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다(서예원 외, 2012).

이와 같은 국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기본 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3,011개의 영재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영재교육 수혜자의 비율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여 1.87%, 121,433명(13.9. 기준)에 이를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교육부, 2013).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에 비중을 두어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영재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질적 성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자질에 따라 영재 판별이나 영재아의 이해, 영재 교육과정 운영 및 실행 등에 있어 영재교육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Hansen & Feldhusen, 1994), 영재아의 잠재력 개발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영재아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김현태, 2011).

영재교사는 일반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열정, 자신감, 창의성, 학생의 독특한 반응을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질을 필요로 한다(이신동 외, 2007). 그중에서 자신감은 영재교사로 구체화 시켰을 경우 교수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수 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Ashton et al., 1983),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등으로 정의된다(Gibson & Dembo, 1984; 여상인, 임희준, 2006). 교수 효능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에게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개인효능감(personal efficacy)과 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인 결과기대감(outcome expectancy)이다(Ashton & Webb, 1986; Enochs & Riggs, 1990; Gibson & Dembo, 1984; 여상인, 임희준, 2006).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을 고려하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윤미라(2010), 김현태(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영재교사 전문성 영역을 사용하였다. 첫째, '교과지식'이다.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과지식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수준과 흥미 및 관심을 고려할 때, 교사는 교과지식의 깊이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최근 지식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영역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꾸준한 연구자세도 필요하다. 둘째, '교수전략'이다. 영재교사는 교과지식의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교과지식의 탐구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영재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수업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 영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영재에 이해’이다. 영재교사가 보유한 교과지식과 교수전략의 전문성은 영재에 대한 이해와 동반될 때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상호협력’이다.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협력의 의미에서 영재교사는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인사나 조직(교장, 교감, 일반교사, 학부모, 영재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조와 도움을 이끌어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추진해나가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협력의 전문성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에 중요한 전문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재교육 담당 교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의 영재교사 자격 제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60시간의 기본과정연수를 이수하면 영재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격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며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수 이수 시간도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직교사들은 직무연수에 대한 깊이의 부족과 연수 이수 과정이 교수 활동을 위한 도구적 기능에 지나지 않음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으나 이번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의 교원대상 연수과정은 <표 1>과 같이 지난 2차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단계별 영재교육 연수과정 (교육부, 2013)

단계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개론(선발 등) Cyber 혹은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능력 강화 팀프로젝트, 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중심교육(교수법, 기관운영, 평가 등) 수업 및 평가컨설팅트
권장 시수	누적 60시간 이하	120시간 이상	주체별 90시간 이상
경력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및 초임영재교원 영재교사 및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경력 5년 이내 영재교육지도 교·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경력 5년 이상 기관운영 전문 코디네이터

반면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관련 학점은 평균적으로 30학점(논문포함), 시간으로 환산하면 450시간 정도이다. 또한 전체 17개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 수는 454개로 평균 27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도 운영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그리고 교육실습의 비율의 평균은 42%, 48%, 8%로 나타났다. 교과교육학은 영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교과내용학은 교과내용과 교과과정의 기반이 되는 학문의 지식에 관한 것으로 과학, 수학부터 인문사회와 예체능까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양하다. 교육실습은 교육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부 대학원에서는 영재교육관찰 실습과 더불어 영재교육참여 실습으로 이원화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영재교육 전공 교과목 개설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재교육 전공 교과목 개설 현황 (한슬지, 2011)

순	전공과목 명	개설한 대학원 수	백분율 (%)	순	전공과목 명	개설한 대학원 수	백분율 (%)
1	영재관별	17	100	15	분야별 심화과정	7	-
2	영재교육개론	16	94.1	16	사고력향상을 위한 교수법	6	35.3
3	영재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16	-	17	영재교육평가	6	-
4	영재교육연구 방법론	15	88.2	18	영재교육 관찰실습	6	-
5	영재교육세미나	15	-	19	정서, 리더십, 인성 영재교육	5	29.4
6	창의성과 영재교육	15	-	20	영재교육동향	4	23.5
7	영재교육과정	12	70.6	21	영재교사 및 학부모교육	4	-
8	영재교육 참가실습	12	-	22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4	-
9	영재아와 발달	11	64.7	23	지능과 영재교육	3	17.6
10	영재상담	11	-	24	영재교육통계	3	-
11	원격 영재교육	9	52.9	25	심리검사	2	11.7
12	영재교수학습론	8	47.1	26	영재캠프의 이론과 실제	1	5.9
13	특수영재교육	7	41.2	27	영재교육논리 및 논술	1	-
14	영재교육행정 및 경영연구	7	-				

이와 같이 영재교육 전반의 필수적인 내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원 과정의 양성이 단기적인 수련에 그치는 직무연수보다 근본적으로 교원과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직교사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학문 추구하고 더불어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영재의 평가 및 관별에 대한 전문성 확보, 영재와의 상담까지 영재교육 전반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다(한슬지, 2011).

그러나 최근까지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적인 영재교사들의 육성과 재교육을 위해 대학원의 석사 과정 프로그램들과 연계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조석희 외, 2003). 또한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의 일반연수와 정교사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에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류지영, 2005).

다행히도 이번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교·사대, 교육대학원의 영재교육 관련 강좌 내실화, 대학원 영재교육학 학위과정 신설·확대권장, 전공 이수과목 중 영재교육 관련 강좌 개설 권장, 신규교사임용 연수과정에 영재교육강좌 확대 등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교육부, 2013).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도 대학원 영재교육 석사 과정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더불어 영재교육 전공자의 영재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영재관련 연수이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수이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영재관련 연수는 기본과정연수 60시간, 심화과정연수 120시간으로 연수 과정이 매우 부족하며 많은 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또는 ‘영재교육 교수·학습방법’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전문성 인식이 낮은 교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질적 수준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다(박지은 외, 2012).

이에 비해 대학원의 영재교육 전공의 시간은 학기별 평균 90시간으로 총 학습시간은 450시간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본과정연수의 7.5배이고 심화과정연수의 2.5배(기본과정연수포함)로 충분히 영재교사로서의 자격을 줄 수 있으나 현재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에게 영재교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재관련 기본과정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 내용을 중복으로 학습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비교하여 영재교육 전공자의 영재교사 자격에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라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개인적 변인(성별, 영재지도 경력)에 따라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에 소재한 교육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3학기 이상, 졸업 및 박사과정 포함) 44명과 영재교육을 전공하지 않은(영재교육 전공자 중 3학기 미만 포함)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영재교사(영재지도 희망 교사 포함) 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별 구성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별 구성 현황 (단위: 명, %)

변 인	영재교육 전공자	영재교육 미전공자	합계
성별	남	19(43.2)	20(35.7)
	여	25(56.8)	36(64.3)
영재지도 경력	무경력	8(18.2)	8(14.3)
	2년 이하	15(34.1)	32(57.1)
	2년 초과	21(47.7)	16(28.6)
합 계	44(100)	56(100)	100(100)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묻는 질문지 형식의 척도로 설문문항은 영재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 자신의 인식 측정을 위한 15문항과 영재교사로서의 교수효능감 측정을 위한 24문항이며, 모두 Likert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측정 도구

초등학교 영재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분석(윤미라, 2010), 초등학교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김현태, 2011), 영재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최남구, 2011)에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영재교육 전문가와 영재교육 전공자의 조언을 얻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적신뢰도

영역	문항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교과지식		1,2,3,4	4	.762
교수전략	Likert식 5단계	5,6,7,8,9	5	.809
영재아 이해	평정척도형	10,11,12	3	.723
상호협력		13,14,15	3	.653
전체			15문항	.914

나. 영재교사의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

영재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개인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수효능감 측정은 STEBI-B(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Form B)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영재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최남구, 2011)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영재교육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재교사의 교수효능감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적신뢰도

영역	문항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개인효능감	Likert식 5단계	2, 4, 5*, 7*, 11, 16*, 17, 18*, 20*, 21*, 22, 23*	12	.880
결과기대감	평정척도형	1, 3, 6, 8, 9*, 10, 12*, 13, 14, 15, 19*, 24*	12	.704
전체			24문항	.837

*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3. 자료 처리 방법

이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 비교 연구이므로 채점결과를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재교육 미전공자의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밖에 독립변인으로 성별,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재교육 미전공자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비교

가.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결과

영역	$M(SD)$		t	p
	영재교육 전공자 ($N=44$)	영재교육 미전공자 ($N=56$)		
전문성인식	3.97(.52)	3.51(.51)	4.362	.000
교수효능감	3.58(.40)	3.28(.34)	3.936	.0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성 인식에서는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자($M=3.97$)가 영재교육 미전공자($M=3.51$)보다 평균이 높았고, 교수효능감에서도 영재교육 전공자($M=3.58$)가 영재교육 미전공자($M=3.28$)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나.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의 하위 영역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의 여부에 따른 전문성 인식 4개의 하위 영역(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상호협력)과 교수효능감 2개의 하위 영역(개인효능감, 결과기대감)에 대한 검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의 하위 영역 결과

영역	하위 영역	M(SD)		t	p
		영재교육 전공자 (N=44)	영재교육 미전공자 (N=56)		
전문성 인식	교과지식	4.01(.61)	3.62(.49)	3.559	.001
	교수전략	4.14(.55)	3.70(.52)	4.084	.000
	영재아 이해	3.98(.56)	3.21(.75)	5.760	.000
	상호협력	3.64(.75)	3.40(.63)	1.668	.099
교수 효능감	개인효능감	3.93(.51)	3.52(.51)	3.973	.000
	결과기대감	3.22(.48)	3.05(.37)	2.054	.043

<표 7>과 같이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4개의 하위 영역 모두 영재교육 전공자가 영재교육 미전공자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다. 교과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교수전략과 영재아 이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상호협력에서는 영재교육 전공자가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리고 영재교사의 교수효능감 2개의 하위 영역 모두 영재교육 전공자가 영재교육 미전공자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고, 개인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결과기대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에 대한 교과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의 영재의 심리와 특성도 배우며, 영재프로그램 개발, 영재관별, 교수방법, 평가 그리고 실습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교수효능감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종학력이 석사과정을 이수한 경우 즉,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영재교수의 효능감에서 개인효능감과 결과기대감 모두 석사학위 소지 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최남구(2011)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솔지(2011)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단기적인 직무연수보다는 대학원 교육과정의 양성으로 영재교사 및 전문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으며, 앞으로는 영재교원자격증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전문영재교원으로 재편되어 전문적인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영재교육 교원을 대체하여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이 미전공자 영재교사에 비해 뒤지지 않고, 그 이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과정연수 60시간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영재교육 전공자들의 위치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앞으로 이들의 영재교사로서의 자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비교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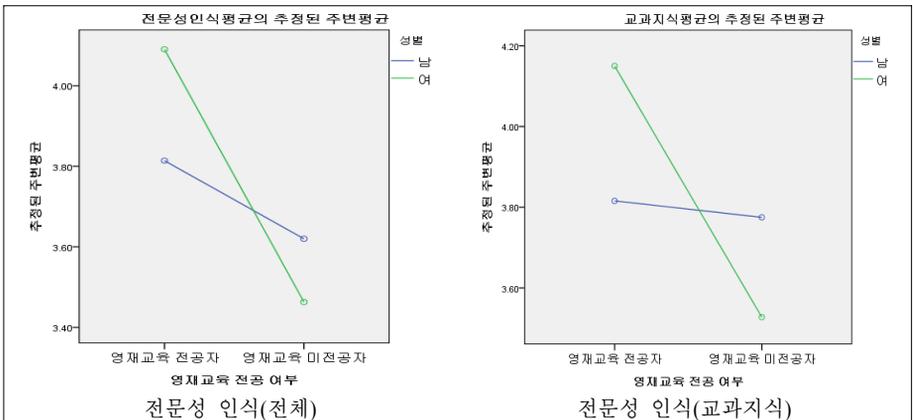
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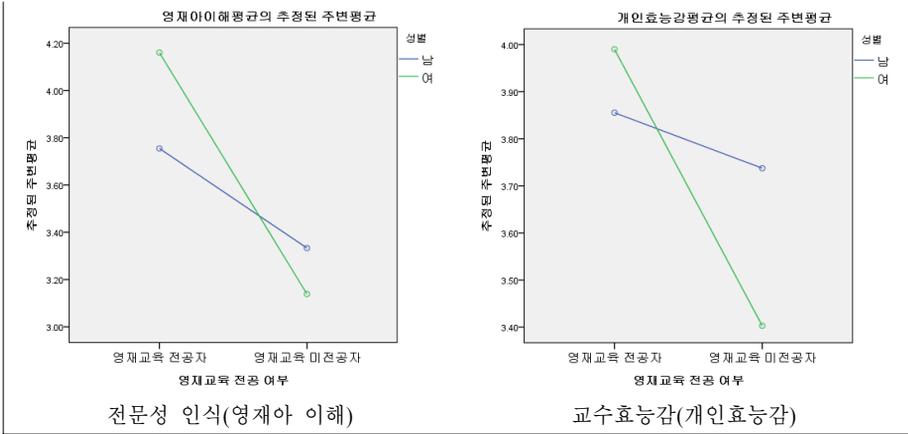
<표 8>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결과

영역	하위영역	M(SD)				p	상호작용효과 여부
		남(N=39)		여(N=61)			
		영재교육 전공자 (N=19)	영재교육 미전공자 (N=20)	영재교육 전공자 (N=25)	영재교육 미전공자 (N=36)		
전문성 인식	전체	3.81(.62)	3.62(.66)	4.09(.40)	3.46(.41)	.041	○
	교과지식	3.82(.73)	3.78(.60)	4.15(.46)	3.53(.40)	.009	○
	교수전략	4.04(.63)	3.78(.66)	4.21(.47)	3.65(.42)	.181	×
	영재아 이해	3.75(.61)	3.33(.81)	4.16(.45)	3.14(.71)	.030	○
	상호협력	3.49(.88)	3.43(.85)	3.75(.64)	3.39(.49)	.296	×
교수 효능감	전체	3.62(.46)	3.39(.42)	3.54(.35)	3.22(.28)	.543	×
	개인효능감	3.86(.49)	3.74(.53)	3.99(.53)	3.40(.47)	.025	○
	결과기대감	3.38(.53)	3.05(.47)	3.10(.39)	3.05(.31)	.097	×

<표 8>과 같이 영재교육 전공자 집단에서의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가 영재교육 미전공자 집단의 남교사와 여교사보다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의 평균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영재교육 전공자 집단 내에서는 여교사가, 영재교육 미전공자 집단에서는 남교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영역은 전문성 인식 전체와 하위영역인 교과지식, 영재아 이해 영역이며 교수효능감에서는 하위영역인 개인효능감 영역이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영역의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남교사는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재교육 미전공자와의 차이가 작으나 여교사는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재교육 미전공자의 차이가 남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그림 1]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 비교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대학원에서 영재교육 전공을 하는 경우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교사가 남교사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학교알리미, 2012)에서 여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교수효능감 증대를 위한 방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중 영재교육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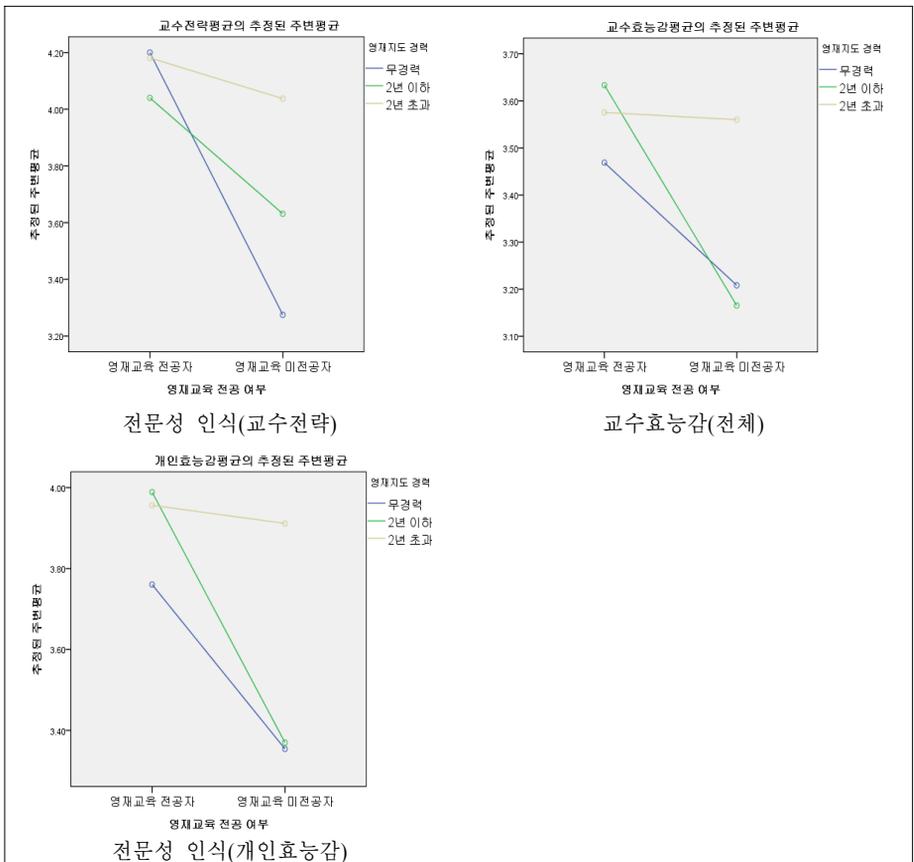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이러한 평균의 차이

<표 9>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교수효능감 결과

영역	하위영역	M(SD)						p	상호작용 효과 유무
		무경력(N=16)		2년 이하(N=47)		2년 초과(N=37)			
		영재교육 전공자(N=8)	영재교육 미전공자(N=8)	영재교육 전공자(N=15)	영재교육 미전공자(N=32)	영재교육 전공자(N=21)	영재교육 미전공자(N=16)		
전문성 인식	전체	3.95(.49)	3.22(.54)	3.91(.68)	3.43(.39)	4.03(.41)	3.85(.56)	.140	×
	교과지식	3.97(.54)	3.38(.53)	3.98(.72)	3.54(.32)	4.04(.57)	3.89(.63)	.296	×
	교수전략	4.20(.47)	3.28(.50)	4.04(.68)	3.63(.39)	4.18(.49)	4.04(.58)	.040	○
	영재아 이해	4.00(.53)	2.92(.83)	3.96(.71)	3.10(.69)	4.00(.46)	3.56(.73)	.199	×
	상호협력	3.46(.87)	3.21(.50)	3.53(.83)	3.26(.58)	3.78(.65)	3.79(.65)	.617	×
교수 효능감	전체	3.47(.58)	3.21(.25)	3.63(.39)	3.17(.29)	3.58(.33)	3.56(.34)	.020	○
	개인효능감	3.76(.78)	3.35(.41)	3.99(.43)	3.37(.45)	3.96(.45)	3.91(.48)	.037	○
	결과기대감	3.18(.47)	3.06(.28)	3.28(.55)	2.96(.39)	3.19(.44)	3.21(.32)	.224	×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대체로 영재교육 전공자 집단과 영재교육 미전공자 집단 모두 영재지도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각 영재지도 경력 집단 내에서는 영재교육 전공자가 영재교육 미전공자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영역은 전문성 인식의 하위영역인 교수전략 영역, 교수효능감 전체와 하위영역인 개인효능감 영역이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영역의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 비교

[그림 2]에서와 같이 영재교육 지도경력이 2년 초과인 집단에서는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

재교육 미전공자와의 차이가 작으나 무경력과 2년 이하인 집단에서는 영재교육 전공자와 영재교육 미전공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라 무경력을 포함한 저경력 교사는 고경력 교사보다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비교했을 때, 전문성 인식에서의 교수전략과 교수효능감에서의 개인효능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지도경력이 오래된 교사보다 무경력,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현직 교사들의 경우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현재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다(서예원 외, 2012). 짧은 기간 많은 영재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단기간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영재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다보니 현재 영재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미숙한 상태로 영재교육에 뛰어드는 영재교사들이 많으며, 그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초·중등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이 필요하듯이 영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영재교사의 걸 맞는 자질과 능력,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재교사의 자격을 단기간의 직무연수 이수 여부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성 있는 교원을 통한 질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4.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 분석

가.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두 영역의 각 하위 영역별 변인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적률상관관계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상호협력	개인효능감
교수전략	.761**				
영재아 이해	.737**	.711**			
상호협력	.645**	.637**	.646**		
개인효능감	.701**	.674**	.557**	.503**	
결과기대감	.357**	.360**	.317**	.316**	.294**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은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294~.761)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인식 하위 영역과 교수효능감의 하위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영재교사들의 교수효능감 점수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요인과 교수효능감에 따른 영향 검증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요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요인이 영재교사의 개인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β				
(상수)							
교과지식	.436	.116	.456	3.763	.000	27.729***	.539
교수전략	.326	.112	.341	2.916	.004		
영재아이해	-.020	.081	-.028	-.248	.805		
상호협력	.008	.078	.010	.097	.923		

<표 11>에 따르면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상호협력의 네 개의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R²는 .539로서 영재교사의 개인효능감 총변화량의 53.9%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값은 27.729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 인식의 하위 영역 중 교과지식(B=.436, p<.001)과 교수전략(B=.326, p<.01)이 영재교사의 개인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재교사의 개인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향상이 담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등의 방법으로 교과지식, 교수전략에 대한 전문성 인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요인이 결과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 요인이 영재교사의 결과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β				
(상수)							
교과지식	.108	.122	.146	.889	.376	4.254**	.152
교수전략	.124	.118	.167	1.055	.294		
영재아이해	.016	.085	.029	.186	.853		
상호협력	.059	.082	.097	.721	.473		

<표 12>에 따르면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상호협력의 네 개의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R²는 .152로서 영재교사의 개인효능감 총변화량의 15.2%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 값은 4.254로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 인식의 네 개의 하위 영역 중 영재교사의 결과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여부에 따른 전문성 인식에 대해서는 영재교육 전공자가 미전공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영역별로도 상호협력을 제외한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에 대한 교과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의 영재의 심리와 특성도 배우며, 영재프로그램 개발, 영재판별, 교수방법, 평가 그리고 실습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교수효능감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이 미전공자 영재교사에 비해 뒤지지 않고, 그 이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영재교육 전공자들의 위치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성별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비교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영재교육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서 영재교육 전공자가 미전공자보다 전문성 인식에서의 교과지식과 영재아 이해, 교수효능감에서의 개인효능감이 남성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이 대학원의 영재교육 전공을 통하여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향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교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교수효능감 증대를 위한 방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중 영재교육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재교육 전공 여부와 영재지도 경력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비교했을 때, 전문성 인식에서의 교수전략과 교수효능감에서의 개인효능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도경력이 오래된 교사보다 무경력,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영재교육 전공 여부에 따른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의 기회가 본인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전문성 인식 하위영역 중 교과지식과 교수전략 영역이 교수효능감에서의 개인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효능감 중 개인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인식에 대한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Chan(2001)은 홍콩의 영재교사의 특성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에서 영재교사의 전문성에서는 구체적인 기술, 일반적인 전략 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교과지식과 교수전략은 기본과과정연수 60시간만으로는 크게 향상시키기 어려우며 현직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질 높은 다양한 연수들

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서예원 외, 2012). 그러나 지속적이고 질 높은 연수가 아닌 단기간적이고 일방적인 직무연수는 영재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현재 영재교육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에서는 전공 학점 20~24학점, 졸업 이수 학점은 평균 27학점이며 총 27개의 영재교육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교육실습까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한슬지, 2011). 따라서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은 영재교사의 교과지식과 교수전략에서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더 많은 영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지적호기심과 창의성 발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능력 있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영재교사의 육성 없이는 성공적인 영재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류지영, 2005). 본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효능감 또한 영재교육 미전공자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사를 위한 질 높은 직무연수의 개발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대학원 과정의 영재교육전공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영재교육 교원을 점차적으로 대체 및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 전공자는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효능감 또한 영재교육 미전공자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사를 위한 질 높은 직무연수의 개발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대학원 과정의 영재교육 전공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영재교육 교원을 점차적으로 대체 및 배치하여 영재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은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질 높은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영재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영재교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재교사를 위한 연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영재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의 영역, 내용, 시간, 형태, 방법 등 여러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의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재교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영재교육의 정착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될 주제가 영재교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영재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방안과 구체적인 자격 기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자들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제3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 서울: 교육부.
- 김미숙, 서혜애 (2005). **영재교육 가화 사업성과 지표 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이미경, 강병직, 김영아, 김인순, 박지은, 서예원, 유경재, 이희현, 전경남, 서정연, 김아름, 김정연, 박지희, 이석영, 이정희, 정경란 (2010). **한국의 영재교육: 영재교육 현황과 국가 표준 정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태 (2011). **초등 영재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류지영 (2005). 미국 영재교원 양성체제가 한국 영재교원 양성 체제에 주는 시사. **한국교원 교육학회지**, 22(1), 69-88.
- 박지은, 이봉우 (2012). 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과교육 학연구**, 16(2), 587-601.
- 서예원, 이재분, 유경재, 정영옥, 박지은, 이경숙 (2012).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수립 연구**. 수탁연구 CR2012-3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여상인, 임희준 (2006). ‘생활속의 화학’강좌가 예비 초등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효과. **초등과학교육**, 25(4), 374-382.
- 윤미라 (2010).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이희권 (2007).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연수, 배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김홍원, 서혜애, 정현철 (2003). **창의적 지식 생산자 양성을 위한 제4기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남구 (2011). **영재 담당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한슬지 (2011). **우리나라 대학원 영재교육학과의 교육과정 구성 비교와 분석 및 교사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schoolinfo.go.kr/> (검색일: 2013.5.7.).
- Ashton, P. T., Webb, R. B., & Dota, N. (1983). *A study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Final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contact.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Chan, D. W. (2001).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Teachers of Gifted Learners: The Hong Kong Teacher Perspective. *Roeper Review*, 23(4), 197-202.
- Enochs, L. G., & Riggs, I. M. (1990).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 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0(8), 694-706.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4-582.

Hansen, J. B., & Feldhusen, J. F. (1994). Comparison of trained and untrained teacher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3), 115-121.

= Abstract =

Comparis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acy of the Gifted Education Teacher by Majoring in Education for the Gif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in-Cheol Jung

JwaHang Elementary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acy of the gifted education teacher by majoring in education for the gifted from the graduate school. The subjects were 44 graduate students in gifted education major and 56 gifted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who did not major in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majors showed higher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subject knowledge,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the understanding gifted student, personal 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than the teacher who did not major in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p < .05$). Second, in the results of Two-Way ANOVA by the major status in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and the gender, there was the interaction effects in the subject knowledge, the understanding gifted student, personal efficacy, and the females were influenced by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acy by the major status in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more than males. I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major status in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and career for gifted education,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personal efficacy showed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p < .05$). Third, i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he teaching efficacy, all subordinate scopes of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acy showed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 < .05$). I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 knowledge and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have effects on the personal efficacy. So the majoring in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from the graduate school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evelopment of the subject knowledge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of the gifted education teacher, further, it can be said that has positive effect

on teaching efficacy.

Key Words: Major in Gifte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ifted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acy

1차 원고접수: 2013년 9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0월 26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0월 26일